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식지

WINTER, 2018
VOL. 20

SPECIAL ISSUE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TIM은 교회개척과 전방개척선교를 핵심사역으로 삼고, 지난 26년 동안 진력해왔습니다.

현재 TIM은 53개국, 425명의 선교사(MK 146명)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TIM은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교회와 동역할 것입니다.



SPECIAL ISSUE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4
도육한 본부장

한 알의 밀알로 7
블라디미르 송 선교사

〈권역코디(RCI) 전략회의 - 멘버 & 콜로라도스프링스〉
Mature Mission(성숙한 선교를 위하여) 9
제치윤 선교사

〈2018년 TIM 교회개척 세미나〉
CPM+, “P 선언문”이 있기까지 12
윤아굴라 선교사

〈K성 CPM 이야기〉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16
이글라 선교사

〈일본 전략회의〉
TIM-Japan 사역의 교두보 20
김인경, 류영민 선교사



본부에서

〈2018년 신임선교사 TIM 교회개척훈련 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세우는 훈련! 35
정대훈 선교사

〈2018년 OSOM 28기 신임 장기 선교사 간증〉
하나님의 뜻에 따른 움직이는 선교사 38
박성주 선교사

〈2018년 FA FAMILY DAY〉
FA 전우회 40
유진현 간사

〈2018년 FA FAMILY DAY〉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 44
조형진 선교사, 유정운 자매, 김시라 자매, 신기해 자매

〈TIM 위기관리 TF〉
효율적인 선교사 위기관리 46
남정진 장로

본부소식 47
후원교회(기관) 49



열방에서

온누리교회와 TIM의 DNA를 가진
몽골 목회자를 세우며 22
요한 선교사

주님과 함께 걸었던 10년,
주님을 위해 걸어갈 10년 28
뵈뵈 선교사

〈현지 사역자 간증〉
주님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다 32
보야 사역자

Tim 두란노해외선교회



SPECIAL
ISSUE

Merry Christmas

— AND —
HAPPY NEW YEAR

2019

편지 - 김남호 -

그대만을 사랑했지만 사랑을 볼 힘에 없다.
그대만의 나를 사랑해 한이도 없다.
그생각을 하면 내가 꿈틀게 된다.

그대만을
나를 생각해지니 깨운 이마 같다.
내안은 비우는
그대로 세웠던 영동한 거울.
그대의 젊이로 다 차내마련
급변하는 금맥에 배우 된다.
나의 사랑이다.

한해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귀한 선생님들 !!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
봉복에서 벽죽 선생님들과
몽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에 있어요!
선생님들의 수고를 그물은 아십니다.^^
2019년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오신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날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뉴이어 ^^

- 조형진 -

신기하고나 드림
메리크리스마스 !!

7월날,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새롭게 축복드립니다.
올해의 감사들을 이야기~
더욱 기쁨으로 가득 찬 새해가
될 것을 믿으며~!
선생님들 화이팅!!!
HAPPY HAPPY 홍민영!

선생님 홀리드림!!!
이 가을 소식이 가정과 성장을 풍미
그 땅에 풍성하게 흘러 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늘기고 새롭게 되세요!
— 홍민영 —

해피크리스마스 !!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한해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든 아기원으로 작용하고
바래토 ~ 솔itude ~
-최희정 -

감사드리고 난 화이트
우사히 재가하고 듣지도
크리스마스는 늘마다 놀라우며 갖게
되었네요! 모든 사람이 이 날을 축하하고 수 있는
번아지 주제 열려는 화제지만 선수회를 그들이 대체로는
걸어온~ 두 손바이고 거칠게 드는 하루였네요!!
— 최희정 —

!!ONE MORE!!
폐학의 암울 오는 그늘
내면을 찾아내마.^^
이용봉한 아래 선생님들이 저번
그 땅에서 기쁨과 행복, 감사
증명에 기록되었던 바입니다. -제주-

그분이 오셨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양날의 삶을
살피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경재로

매우사는 풋내
뒹기와 놀부이 기특하이마.
고맙습니다.
Vladimir Song

메리크리스마스 ?
풀풀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풋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축복이 넘치는
2019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기쁜주 간수드릴



HAPPY MERRY CHRISTMAS

가장 냉동고로 우리에게 오는 깊은 향향의 단풍을 축복합니다.
내해도 그 크는 사랑과 흔적을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John 3:16]

- 김명자 감사 드립 -

생일의 축원 소원과 은혜와
선생님의 성과 사랑 기록에
감상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 축하인 드립 -

한 생명의 탄생으로
우리가 백성이 기쁨을
얻으니, 이번나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2018 물 살피에도
정말 속고자셨고, 강사
했습니다. 우리 2019도
코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시다~
사랑합니다~ -운정-

수련에서 사귄하는
선생님들, 성탄이 되면
가장 바쁘시지만, 또 가장
기쁘기도 하지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역하시고 선교하시기를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수정 손 꽂고 마모 예쁜
한걸음 한걸음..... -운정-

올해 2018년 설날
이별을 다시 드지 않는날
기쁨과 감사하기
그리고 빛들이 있는 이세계
소식을 전하며 사는
Timer Brightning
- 축 별식 -

, 기쁜 날복는 날입니다.

그분의 이름하여 주께 축고드립니다

그분의 이름하여 주께 축고드립니다

그분의 이름하여 주께는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서 서 축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 됨마다 ~우

Merry Christmas ~ *

- 허경진 대 -

기쁘다~ Jx 캠프에 출

만인이 Jx 많아라!!

앞들도 아침마다 천장을 끄겁니다.

선생님께 기쁨의 소식을 전해마다.

외화, 무어것들은 날이 많겠지만

그곳에서도 그분의 일상에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인화와 정화가 변함없이 있기를 원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밝은 미소로 웃지 않기론...

<by. 미칠드림>

3

날씨가 또 한 +마지막을 더 걸립니다...
한국에 돌아온 어제였던 그때였겠네요?
여기서도.. 풍랑을 빼면 가끔 내린 눈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께서 2019년 아름드리 한해를
두 손 모읍니다. 모든 것의 저마다 풍요로운
그 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나에게 떠나와
기쁨이 가득한바로 보내며...
날씨에서도 아름마다 선생님의 미소는 보고와
증강시키고 있으니, 과거보다는 더~~~
-기쁨을 드립

서울에 골목에서 흰설과 그늘에서 그늘하고 암탉
마을은 일기보로 가득나에게 가득한 고개로
사랑하는 선생님들 ♡

2019년 또한 선생님들끼리 만나고 나누는 스

이여서 그룹사 일을 벌여나세요~!!

날씨에서 보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을

멀리나 더 멀리나는 걸었지...

그들이 가지고 유희를 때, 놀다가 있음을

잊지 마이고 거친 곳에서 사랑을 전해주세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유희해주세요!!

- 허경진 -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도육환 TIM본부장

누구나 한번씩 열심히 걸어가던 길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던 기억을 갖고 있겠지요.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길은 더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선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때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추구하던 목표가 요원해 보이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을 추스르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자신도 확실치 않는 주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내가 내린 결정이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면 더욱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고민은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나 본부에서 섬기는 이들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걸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는 가야하고, 혹여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

저는 지금 파리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이 글을 씁니다. 본디 환승 시간이 네 시간이었는데 다시 두 시간 더 지연되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늘 악속해지지 않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 몰타공화국에서 열린 '에드네 2018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실 대회 측의 초청장을 받아 놓고도 선뜻 참석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지역 전략팀 구성 마무리에 집중했기에 해외 출장이 많았었고 먼 여정을 가야할 만큼 얻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사도 바울 일행이 폭풍 끝에 불시착했던 멜리데섬 현장을 보고 싶다는 매력도 적지 않았기에 참석을 통보하고 이 날을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 때문입니다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지금은 참석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감동 받은 자투리 은혜입니다. 광풍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넘기며 예기치 않게 도착했던 이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불리 오라 불리던 추장의 후예들일 이곳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카톨릭)이 되었고 이 크지 않는 땅에 기독교 문명을 찬란하게 꽂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대로 되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섭리의 현장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길에 확신을 심어 주는지요. 때로 길을 잊기도 하고, 조금 방황해도 그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때로 길을 잊기도 하고,
조금 방황해도
그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제게 주신 큰 감동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 CPM(Church Planting Movement)과 DMM(Disciple Making Movement)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놀라운 사역 현장 보고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개척운동과 제자양육운동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방개척과 CPM을 주 사역으로 삼고 있는 우리 TIM 선교사님들에게는 소망과 기대를 주는 보고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 안에 숨은 CPM에 대한 염려와 의구심을 암니다. ‘정말 그런 열매가 맺힐까’, ‘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최선을 다해 사역하다가도 한번씩 막다른 길목을 만난 것 같은 현실 앞에 그런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각지에서 일어나는 선교운동들을 보면서 제가, 그리고 우리 TIM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으며, 온전히 이 일에 몸을 던져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복음 증거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앓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돌이킬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여전히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분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 위에서 모험적인 서핑을 즐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위에서
모험적인 서핑을
즐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TIM이 가진 핵심 가치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교회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제자와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선교의 본질이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일에 헌신한 여러 동역자들의 수고와 달음질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새해 온누리교회 표어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가 직면한 시대에 꼭 필요한 비전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두란노해와 선교 역시 동일한 비전과 소망을 담고 2019년 표어를 ‘열방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로 삼았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운데 불어 온 성령의 바람이 그들로 생령이 되고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현장마다 성령의 새 바람으로 부흥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한해도 TIM선교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동역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 선교사님들과 이를 후원하고 섬기는 모든 신실하신 성도님 가정마다 새해에도 복되고 은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온누리교회 표어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가 직면한 시대에 꼭 필요한
비전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블라디미르 송 선교사
TIM총무



각각의 현장 가운데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부 총무 역할 맡은 자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리더들을 통해서 TIM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총무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제가 감당해 기야할 몇 가지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누길 원합니다.

현장도 커다란
현신이 요구되지만,
본부에서 지원하는 스태프들의
현신도 참 크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첫째는 본부 조직이 통합적이고 섬기는 스태프들의 선교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도 커다란 현신이 요구되지만, 본부에서 지원하는 스태프들의 현신도 참 크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서로가 단순한 지원자와 행정처리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봄인 단체의 여러 기관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자체들로 서로 섬기고 세움이 있는 분위기가 있도록 노력하면서 스태프 한 분 한 분이 은사와 직능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도 계획적이고 통합적 사고와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몸과 역할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돋고 싶습니다. 여러 사유로 나와 계시지만 특별히 본국에서 사역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준비와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감당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에서 섬기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면서, 이들이 현장에 복귀할 때에는 그 영역의 SC, RC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의 자질을 갖는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역할들을 감당하시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는 현장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현장의 선교사들을 섬기는 RC와 각 영역의 리더십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결정과 진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부에서 현장과 초기 정책적 결정을 갖게 되는 본부사역선교사들과 지역의 SC, RC와 긴밀한 소통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



넷째는 2019년부터 TIM이 사단법인화 되어지면서, 법인으로서 갖춰야 할 투명성과 전문성이 요청되어집니다. 본부와 선교사가 상호책무가 후원자들과 교회와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 개인들의 정책이나 재정들에서도 투명해야 하고, 본부도 재정이나 인사, 정책에 있어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시스템과 인사관리시스템들이 정비가 되어야 하며, 본부와 현장 사이에서 상호 책무와 위탁이 온전하게 자리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째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 내의 전문가 써포터 그룹, 멘토링과 코칭 그룹을 개발하고, 기도모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위기관리와 케어의 부분에서도 매뉴얼화와 시스템이 구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장의 필요에 맞는 선교사 지원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에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긴장과 열매의 풍성함을 간절히 기대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겨울 추위와 제게 맡겨진 역할은 크게 힘겨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 국내에 머무시는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에 미안함과 인터끼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TIM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듣는 날을 고대하면서 달려갈 길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 일의 썩어지는 밀알로서 제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선교사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Mature Mission

(성숙한 선교를 위하여)

제치윤 선교사
TIM

9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TIM본부 리더십, 권역코디네이터(RC), 본부팀장, 이천선교본부장과 TIMA본부 리더십 등 총 18명이 “Towards a Mature Mission!” (성숙한 선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미주 덴버에 모였다. 덴버와 콜로라도스프링스는 미국의 유수한 선교단체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2017년 싱가풀 OMF, WEC본부 방문에 이어 미주지역의 선교단체를 방문해, 창립 25주년을 지난 TIM이 좀 더 성숙한 선교로 나아가기 위한 리더십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OMF, 단체의 선교방향에 듣는 시간



선교단체방문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하고 있는 6개 선교단체를 방문해 각 단체들의 사역과 특성을 이해하고, 선교환경 변화에 대한 각 단체들의 생각과 현재의 사역, 앞으로의 방향을 전해 들었다. OMF, World Venture, Navigators, C&MA, MTI, OC Int' 순으로 이틀에 걸쳐 방문이 진행되었다. 각 선교단체의 사역과 특성은 여러가지로 다양했지만, 모든 선교단체들이 선교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부와 현장의 다양한 변화와 협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 ❶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선교환경 변화로 계속해서 선교사 추방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선교단체들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었다. 교회개척중심의 선교사역을 하던 단체들은 전략적으로 전문 선교사역도 확대하고 있었고, 비자발적 귀국조치를 당한 선교사들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있었다.
- ❷ 한국 선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선교단체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역시 동원에 대한 어려움이다. 캠퍼스 동원을 중점으로 하던 단체들은 교회와 기독교대학을 대상으로 더욱 꾸준히 홍보하고, 젊은이들의 시각에 따라 웹사이트나 SNS를 통한 홍보와 동원도 지속하고 있었다.

- ❸ 또한 단체의 사역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역에 있어 타 단체와의 협력사역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 ❹ 선교현장과 본부와의 관계는 모든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절대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본부에서는 현장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선교현장 혹은 현지인에 의한 주도적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아울러 본부는 많은 선교 자원을 동원하고, 좋은 자원을 선발하여 현장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돋고 있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 케어와 선교사 자기개발에 본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OC Int', 단체의 선교방향에 듣는 시간





본부와 RC

권역코디회의

6개 선교단체를 방문하는 가운데서도 밤 늦은 시간까지 선교현장과 선교사들을 향한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TIM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현장 사역을 위해 선교사 두 유닛 이상이 모여 TEAM을 구성해 사역하는 S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활성화되어 건강하게 사역을 해나가는 ST도 있지만,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되었으나 어려움을 겪는 ST도 존재한다. 이번 RC회의는 이것을 보완하고 현장중심의 사역 강화를 위해 RC와 본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다.

작년 싱가폴회의와 25주년 전체모임 이후에 진행된 권역코디(RC)회의 였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과 RC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ST를 구성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ST와 권역을 책임지는 RC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사역과 RC로서의 역할 가운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한 2000선교본부장과 TIMA의 본부장, 총무 등 TIM본부 내/외부 리더십들이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등 솔직한 고백과 건강한 나눔을 통한 성숙함을 보여준 회의가 되었다.

빡빡한 일정과 늦은 시간 계속된 회의 중에도 RC들은 현장과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RC로서의 건강한 발전 방안을 열정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 ❶ RC들이 연 1회 현장 방문을 통해 ST를 멘토링하고,
- ❷ RC와 본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다.
- ❸ 현장사역 강화를 위해 현장선교사의 사업계획서를 RC가 검토하고,
- ❹ 현장선교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 ❺ 예산심의와 승인을 위한 사전 모임을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선교단체 방문과 RC회의를 통해 본부는 현장중심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사역별, 종교별 전문화된 전략회의의 필요와 진행을 결정하였다. 또한 앞으로 EZRA 플랜과 함께 선교사 교육과 역량강화에도 더욱 주력해 갈 것이다. 지난 싱가폴 권역코디(RC) 전략회의는 TIM의 변화와 혁신을 고민하고 이야기 한 시간이었다면, 이번 미국 권역코디(RC)전략회의는 타 선교단체 방문을 통해 현장중심사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2018년 TIM 교회개척 세미나 **CPM+, “P 선언문”이 있기까지**

윤아글라 선교사
TIM총무

2018년 10월 28명의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 소속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 P지역에서 TIM의 교회개척전략을 논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TIM의 교회개척전략을 담은 “P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TIM은 “전방”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평신도” 선교 단체이다. TIM의 선교사들은 다양한 플랫폼사역을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잘 만들어 왔지만, 접촉점에서부터 전도와 양육을 거쳐 교회개척을 이루어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해 왔다. 이에 TIM본부는 2014년부터 TIM 선교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개척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미국 남침례교해외선교부(이하 IMB)의 CPM(Church Planting Movements, 교회개척배가운동) 전략을 도입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28명의 TIM 소속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 P지역에서
“P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TIM본부가 IMB의 CPM 전략을 진행하는 데 대하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TIM본부는 IMB의 CPM을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적용을 위한 TIM에 맞는 교회개척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 TIM은 2018년부터 CPM훈련을 위한 자체강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체계적인 양육과 건강한 교회론의 필요를 느끼고 기존의 CPM을 업그레이드하여 CPM+라는 이름으로 현장과 함께 TIM의 교회개척전략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2018년 CPM+를 준비하면서, TIM 본부는 교회개척을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P 선언문”에는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TIM은 이 “P 선언문”이 여러 현장에 공유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① 복음은 말로 선포되어야 하며,

말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지에 사는 것이 선교는 아니다. 선교사는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현지인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전도), 복음을 설명해야 한다(양육).

② TIM의 교회개척은

“선교적 교회개척”이어야 한다.

TIM선교사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보다는, Acts29의 DNA를 가진 자로서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③ TIM의 교회 협력 사역은 교회개척을 위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적 활동과

협력이어야 한다.

TIM선교사는 현지교회와 협력함에 있어서 현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먼저가 아닌, 선교가 목적이 되는 교회협력을 하여야 한다.

13



이 기본 원칙 아래, P지역에 모인 28명의 선교사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TIM의 구체적인 교회개척전략을 담은 “P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P 선언문”에는 선교적 교회개척, 복음전도, 강한 제자 양육, 선교적 교회협력, 플랫폼을 통한 교회개척 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이제 TIM은 이 “P 선언문”이 여러 현장에 공유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현장의 많은 TIM 선교사들이 플랫폼을 통한 접촉점 형성에서부터 적극적인 전도와 양육을 거쳐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가 선교적 교회 협력의 모델까지 만들어 가는데, CPM+와 “P 선언문”이 좋은 동기부여와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2018 CPM+ P 선언문

서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된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는, 온누리교회의 ACTS29비전인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의 실현을 위해 주님 오시기까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나가는 전방개척선교사로서 믿음, 거룩, 헌신, 순종의 핵심가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비전 성취를 위한 CPM Plus 1차 P 선언에 서약한다.

선교적 교회 개척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한다. 선교적 교회란 긴급성을 갖고 복음주의적인 토착교회의 재생산을 사명으로 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4

- ①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며 선교 현장에 적합한 전도방법 개발에 힘쓴다.
- ② 제자양육 초기부터 제자와 교회의 재생산을 목표로 한다.
- ③ 제자 모임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정기적인 예배, 교제, 헌금, 성례, 선교)
- ④ 개척된 교회가 대위임령에 따라 선교의 운동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복음전도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종족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말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막16:15, 요3:16, 행20:24, 롬15:16, 고전1:21, 고전9:23, 앱6:19, 딤후1:11, 계14:6)



강한 제자 양육

우리는 충성된 강한 제자를 양육한다. 강한 제자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자신의 삶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며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재생산을 하는 선교적 제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 ❶ 선교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먼저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서게 한다.
- ❷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제자 양육 방법을 개발하는데 힘쓴다. 이 방법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 큐티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관계훈련, 성품훈련
(행 1:8, 고후10:4, 앱 1:19, 빌 3:17, 마 28:18~20, 빌 1:7, 골 1:6)

선교적 교회협력

우리는 현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도록 전략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는 현지 교회를 존중하며, 이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 성취를 위한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5

- ❶ 선교적 필요를 파악하여 돋는다.
- ❷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 ❸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한다.

플랫폼을 통한 교회개척

우리는 선교적 교회개척을 위해 현지의 상황에 따라 플랫폼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❶ 플랫폼 사역 초기부터 선교적 교회개척을 목표로 한다.
- ❷ 플랫폼 사역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한다.
- ❸ 반드시 팀을 이루어 사역한다.

2018. 11. 1
2018 참석자 일동



SPECIAL
ISSUE

K성 CPM 이야기

부활절을 맞아 전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복음을 위한 끊임 없는 도전

아굴라 선교사

동아시아C국

16

2014년 봄, 북경에서 진행한 CPM 세미나를 통해 나 또한 평화의 사람을 찾고 전도, 양육하여 복음화를 빠르게 이루어가는 이론에 도전을 받아 그것을 이루기를 꿈꾸며, K성에 1,500개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도약-도전의 시간

K대학교 도서관에서 알게 된 S자매, L형제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던 나는 그들과 CPM에 대해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해 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2017년 초 현지인 목회자로부터 공안국에서 K대 부근 한국 선교사들의 모임을 조사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모임에 참석하던 4명의 학생을 출입과 동시에 다른 도시로 파송하고, 2명은 현지인 교회로 인도했다. 2014년 시작된 모임을 통해 50여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모임의 지속적 참여와 전도, 양육, 제자로 뿌리는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N지역 직장인 모임은 2015년 4월에 시작되었다

이 모임의 형제, 자매들은
복음을 듣고 대부분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와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N지역 직장인 모임은 2015년 4월에 시작되었다. 현재 모임의 리더인 S자매는 모임의 형제, 자매들과 N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K성의 여러 지역과 특히 자신의 고향에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 모임의 형제, 자매들은 복음을 듣고 대부분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와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된 영혼을 먼저 모임에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직장이든 집이든 학원이든 장소에 관계없이 전도된 장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임은 3명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도록 권하고 도왔다. 이런 형태로 시작된 모임이 T국 문화원 모임이었다. 교수로 있던 L자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8개월 정도 모임을 진행했고, 30여명이 구원을 받았다. 더 이상 학교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가까운 가정교회로 인도되었다.

Happy 바이블 모임은 수학 선생이면서 학원을 운영하는 S형제의 학원에서 선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5명의 선생들은 주 1회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의 리더인 L선생과 H선생이 15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학생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학부모의 신고로 모임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두 선생은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17

적극적인 성경공부와 나눔의 현장





시골마을에 찾아가 드리는 예배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소수민족 농촌 지역 모임, S신혼부부 모임, K대 모임, C여성 모임 등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점점 활성화되었지만, CPM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배가되는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확실했다.

교제와 양육,
제자 삼는 시간은 나를
더 성장시켰고,
사역에 대해 더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비 – 재도약을 위한 준비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교회개척을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교제와 양육, 제자 삼는 시간은 나를 더 성장시켰고, 사역에 대해 더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P지역에서 진행된 CPM+는 TIM의 선교 방향인 1)전도 2)양육 3)교회개척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함께한 선교사들과 각자의 사역에 대한 나눔과 토론의 시간이 부족해 현장에서의 교회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다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자 나의 뜻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 정도의 시점에서 나는 TIM CPM매뉴얼을 제안하고 싶다. 누구나 배워서 적용하면 동일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CPM사역의 과정에 필요한 매뉴얼이다.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여 아래의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한 CPM 매뉴얼 책자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선교지에 들어간 신임선교사를 위해

언어를 배우면서는 어떤 방법들로 복음을 나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고 언제쯤 복음을 나눌 것인가 등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을 나누는 데 필요 한 매뉴얼을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해 만들고 다시 현장 상황과 자신에 더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둘째, 성경공부 교재와 그 교재에 대한 매뉴얼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로 성령 치유 수양회 또는 성령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셋째, 소그룹 활동을 통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성령공동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성도간의 교제에 함께함으로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돋는 매뉴얼이다(4W 예배).

넷째, 양육 훈련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따른

표준 매뉴얼

강력한 제자는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 진다. 누구나 모임을 진행하고 제자화할 수 있는 모임과 모임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TIM만의 누구나 보고 배워 적용할 수 있는 CPM매뉴얼이 만들어져 현장에서 많은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고, 2대 3대 4대까지 계속 개척되기를 소망해본다.

소그룹모임





SPECIAL
ISSUE

일본 전략회의 TIM-Japan 사역의 교두보

김인경, 류영민 선교사

TIM

일본 열도의 4개 지역(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중 열도 남서쪽에 위치한 큐슈에서 가장 큰 도시 후쿠오카는 경제, 문화 중심도시로 비행기와 철도 및 주변지역으로 가는 버스 등 교통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일본 열도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이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통의 요충지 후쿠오카에서 일본 선교사 및 본부 스태프로 구성된 약 20 여명이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번 전략회의는 28번째 러브소나타가 후쿠오카에 열리는 기간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었다. 일본은 러브소나타를 비롯하여 비전교회, CGNTV, 두란노서원 등 온누리교회의 여러

선교기관들이 연합하여 사역하는 온누리교회의 전략적 선교지역이다.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사역

이러한 전략적 선교지에서의 사역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 동안의 사역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좀 더 심도 깊은 다음 단계의 일본 선교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

현재까지의 사역의 형태를 뛰어 넘어서는 현장의 Needs를 더욱 더 반영하는 사역의 형태로써의 일본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현지교회와의 긴밀



한 의사소통능력,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 협력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지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현장 선교사의 역량 및 역할이 더욱 요긴해지고 있다. 선교사 개인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선교’가 ‘선교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의 촉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전체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일본 선교사의 가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전략회의 이후 2년 동안 진행된 각 ST의 사역들과 그에 대한 평가, 사역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TIM의 선교정책과 전략팀(ST) 구성, 효율적인 팀 사역 방안과 이를 이루기 위한 지역이동에 대한 주제 등도 함께 다루어졌다. 매 시간들이 진지했으며 열띤 토론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가감 없이 나누어지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목표와 헌신된 결정, 부르심과 사역들 등 많은 생각 속에서 다시 하나님 의 선교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케 되는 시간들이었다.

그 동안의 사역들을 기반으로 운동력 있게 사역하기 위해 오사카에 TIM-Japan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동역과 연합 – 교회와 선교사의 역할

21

특별히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이영선 목사와 김철희 목사(서빙고 일본어예배 담당)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영선 목사는 일본 비전교회 본부장으로서 일본에서의 온누리교회 및 앞으로 TIM-Japan 본부장을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이영선 목사는 전체회의에서 일본비전교회에서 선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는 비전교회 목사지만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만 몰두하게 됩니다. 교회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고정적인 사역을 하기 쉽지요. 선교사와 연합하여 전도와 선교를 발맞춰 갈 때 새로운 사역과 생명력이 교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TIM-Japan은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영성을 체계적으로 흘려 보낼 연합 기구의 필요성 아래 설립된 취지 하에 일본 내 비전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각 교회에 공급하며, 선교 영성을 공유하는 등 선교 매트릭스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교회가 열방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를 위한 전략팀(ST)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뿐만 아니라 비전교회와의 사역 네트워크, 러브소나타를 통해 영향을 받은 일본 현지교회와의 브릿지 역할, 다음세대 선교 동원 및 일본 지역교회를 통한 협력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 동안의 사역들을 기반으로 이를 가속화하고 운동력 있게 사역하기 위해 오사카에 TIM-Japan 사무실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략회의는 일본 선교의 전략팀(ST) 사역방향을 재조정하고 TIM-Japan 사역의 교두보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열방에서

온누리교회와 TIM의 DNA를 가진 몽골 목회자를 세우며

요한 선교사

몽골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TIM

목사 안수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강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



열방에서

몽골선교의 시작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의 몽골선교는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어섰다. 온누리교회는 1996년 몽골 브리야트 종족을 미전도종족 입양전략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본격화된 TIM 몽골 선교는 브리야트 종족뿐 아니라 몽골의 주요 종족인 할하종족의 선교로까지 확대되어 2018년 현재 세 가정의 현지인 선교사를 포함하여 장, 단기 29명의 선교사가 4개의 전략팀(ST, strategy team)으로 나누어 사역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의 성취

2012년 본국사역 중 당시 C전도사와 교제하면서 아직 어리게만 생각했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녀'이자, '영적 제자'라고 생각하던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전 어엿한 교회지도자로, 목회자로 성장하여 '동반자' 혹은 '사역의 리더'로 함께 할 것을 보게 하셨다. 목사로 세우는 것뿐 아니라 몽골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밀알이 되고, 실재적인 존중과 겸손의 모범으로 그들을 높여서 사역하는 사역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이다. 그 결과 2018년 9월, 세 명의 온누리교회 출신 몽골 사역자 A, N, C목사가 몽골연합신학교 강당을 가득 메운 150여 명의 몽골 성도들과 11명의 목사 안수 위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인천캠퍼스 공동체 성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몽골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밀알이 되고, 실재적인 존중과 겸손의 모범으로 그들을 높여서 사역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번 목사 안수식은 단순히 신학교를 마친 교회사역자에게 목회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주는 일이 아닌 온누리교회와 TIM을 뿌리부터 경험한 몽골의 형제들에게 '이제는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23



리더로의 준비시간

A목사는 2000년대 초반 안산M센터를 통해 처음 신앙을 갖고, 2009년부터 안산과 평택 몽골어 예배를 장로와 전도사로 섬기면서 2015년 단기선교사훈련(turning point)를 수료하고 2016년 TIM 현지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N목사는 2000년대 초까지 몽골 YWAM에서 신양생활을 했다. 2006년 안산 몽골어 예배의 장로로 3년을 사역 후 몽골로 돌아와 잠시 교회와 멀어졌다가 요한 선교사 등을 통해 주님의 영광교회 초기부터 교회의 장로, 전도사로 사역했다. 2016년 K목사로부터 교회를 위임 받고 대표장로가 되어 교회의 전반을 섬기며 2018년 1월 단기선교사훈련(turning point)를 수료하였다.

C목사는 2000년대 초에 요한B 선교사가 개척한 U시 사랑의 교회에서 신양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요한, P 선교사가 섬겼던 몽골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을 통해 훈련을 받았고, 2009년 서빙고 몽골어예배 전도사로 사역, 단기선교사훈련(turning point)를 수료 후 TIM 현지선교사로 파송 받아 주님의 영광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다.

이번 목사 안수식을 위해 몽골 TIM의 4개 전략팀은 2017년 12월 요한 선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안수 준비위원회는 현재 몽골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각 교단, 몽골 현지 교회 및 교단, 그리고 특별히 몽골연합 목사 안수식을 관장하고 인준하는 몽골목회자연맹의 안수 기준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준하는 6개월의 '목회준비학교'과정을 2018년 2월부터 시작하였다. 물론 세 명 모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목회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좀더 성경적인 목회자의 영성과 특별히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는 목회방향 설정을 돋기 위해 교회, 목회, 설교, 선교, 예배, 성례 등 6개 주제로 7명의 선교사들이 강사로, 몽골목회자 K목사, A목사가 특별강사 겸 통역으로 함께 하였다.

그리고 지난 8월 마지막 세미나를 마치고 개인의 신앙고백, 목회 부르심, 목회 계획, 목회자 가정, 개인 스트레스 해소법, 성도 관계 방법, 개인 인생 지도 및 비전 지도, 죄의 정의와 회개경험 등의 내용으로 1박2일의 리트릿을 가졌고, 새벽까지 이어진 고백과 중보를 통해 위로부터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함께한 모두가 특별한 목회공동체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고, 안수식 이후에도 예배소의 두란노서원과 같은 '목회지원연구모임'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기로 하였다.

안수 받은 세 명의 목사들은 TIM 몽골선교 20년의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몽골선교의 미래

이번에 안수 받은 세 명의 목사들은 TIM 몽골선교 20년의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온누리교회와 TIM을 두루 경험하며 지난 20년 가까이 양육되고 성장해 온 우리 몽골선교 현장의 실제적인 열매이기 때문이다. 선교의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와 TIM을 통해 몽골에서 시작하신 그분의 선교를 분명히 이들을 통해 이어가실 것이다. 이들의 섬기는 교회와 사역으로 이 땅 몽골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그분의 영혼들을 부르실 것이다. 이미 N목사는 교도소 교회 개척, 거리의 아이들 보육원 사역과 사회적 선교를 품은 교회 사역, A목사는 맹인교회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 교회 사역 그리고 C목사는 경배와 찬양 사역, 성경번역 사역과 양육 중심의 교회를 꿈꾸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있다.



열방에서



소그룹모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현지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목회준비학교



최근 몽골의 선교 현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2006년 몽골 선교 15주년 대회를 기점으로 오히려 몽골의 교회와 성도 수는 줄어들었다. 또한 선교사의 교회사역 참여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 매년 2~3가정의 선교사들은 비자가 거부되고, 비자 외 활동(종교활동)을 한 이유로 추방되는 경우도 매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거리 전도행위는 금지되었고, 또한 공공장소 종교활동도 금지되어 종교비자가 아닌 경우 공예배의 인도자나 설교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몽골 기독교 단체 내에서의 선교사의 영향력도 이제 점차 약해지고 있다. 몽골에서 외국인인 선교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젠가는 돌아가야만 할 때도 올 것이다. 그 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인 현지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25



A목사의 감사글

목사안수는 제게 믿음 생활의 큰 결정이자 신앙여정의 큰 걸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약하디 약한 저를 주님의 교회에 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목사 안수를 위해 6개월간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해주시고, 경험을 나눠주신 선교사님들과 안수식에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신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영혼과 신앙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약하디 약한 저를 주님의 교회에
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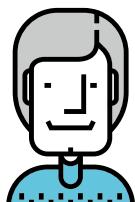
C목사의 감사글

제가 16살이던 2002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여름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를 찬양 사역자, 복음 사역자, 그리고 말씀 사역자라는 세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찬양 사역자로 몽골과 한국에서 사역했고, 2016년에는 TIM의 몽골 현지인 선교사로 복음 사역자의 부르심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씀 사역자이자 목사로 드디어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것은 제 신앙여정의 큰 과정입니다. 연약한 저를 자신의 천국사역의 섬김이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어예배 전도사와 장로로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신 교회와 공동체 형제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은 잠시 동안의 섬김이 아니요,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마칠 때에 그 부르심에 진실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가슴 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를 찬양 사역자,
복음 사역자, 그리고 말씀 사역자라는
세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열방에서

N목사의 감사글

하나님은 자비하신 용서의 하나님 이십니다. 저는 지금 정말 기쁩니다. 이전의 제게 목사 안수는 너무도 멀고 먼 얘기로만 생각되어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목사가 되는 일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며, 내가 여기에서 또 다시 도망갈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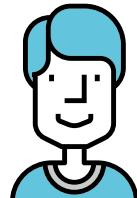
사실 지난 6개월간의 ‘목회준비학교’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가 목사가 될 적절한 사람인가?에 대해 되묻고 고민하면서, ‘돌아갈까? 그만둘까?’라고 반복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요한 선교사님의 ‘당신은 이제 돌아갈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입니까? 그 복을 전달할 사람이 제가 맞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평안해졌고,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의 섬김을 명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안수를 받고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늘 제가 갈 수 없는 높은 산 같았고, 그러나 정말 꼭 섬기고 싶었던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이 추운지, 배고픈지, 외로운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안수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한글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신 가족과 TIM 몽골 선교사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이
추운지, 배고픈지, 외로운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사람

27



안수 받는 A, C, N목사





열방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10년, 주님을 위해 걸어갈 10년

뵈비 선교사

몽골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몽골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뿌리 깊이 남아있다. 거기에 라마불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된 형태의 문화까지 더해져,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형식적으로나마 보장되기에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해야 하는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갖기까지 수 많은 선택의 기로와 때론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몽골 또한 어느 선교지와 매한가지이다.

순교자 기념관 –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다





열방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10년

29

2017년 11월 10주년을 맞이한 '주님의 교회'는 개척 단계부터 말씀, 기도, 전도에 목숨을 건 선교사로부터 훈련 받았기 때문에 리더들의 영적인 기초가 탄탄하다. 이러한 훈련으로 지속적인 외부 지원 없이도 지금까지 현지인 리더들이 자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제난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리더들이 각 교회들을 자력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육간에 지친 리더들에게는 10주년을 기점으로 쉼과 안식, 재충전이 필요했다.

10주년 기념 예배 표어 '주님과 함께 걸었던 10년, 주님을 위해 걸어갈 10년'을 위해 '생명의 씨앗'교회, '주님의 교회' 및 지 교회 등의 리더들이 첫 사랑을 회복하고, 넓은 시야로 더 큰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한국 방문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없었다. 몽골에서 한국 입국 비자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큰 액수의 보증금을 걸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함은 물론이며, 항공료와 체류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의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과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은 기쁘고 행복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주님의 손길과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모든 일정은 기쁘고 행복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Tim



복음의 증인들

이번 방문을 함께 한 8명의 리더들은 각각의 사연이 있다. 20살에 아무 것도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이양 받아 떠나가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죄 짓는 기분이었다는 '보야',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부르네', 100km 되는 거리를 7년간 매주 왕복하며 교회를 개척한 '바이라', 최근 남편을 잃은 슬픔도 참으며 끊임이 교회를 섬기는 '어트거, 오르나, 토야', 손수 지은 두 평 남짓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매주 기도하는 '잉흐토야', 달의 유언으로 예수님을 믿고 죽음과 부활을 몸소 체험한 '발징남'까지… 이야기하자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모자를 그들의 인생 이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번 여행 중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곳으로 '순교자 기념관'과 '양화진'을 꼽는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과 죽음도 멈출 수 없었던 순교자들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고 한다. 한 리더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 받은 몽골 기독교의 1대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 진리를 잘 가르쳐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몽골 기독교의 역사가 변하게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또 한 명은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 진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살기 좋은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의 몽골에서 선교사로 살아주어 고마워요'라며 눈시울 붉혔다. 다른 리더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여름마다 오는 아웃리치 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하용조목사 기념관'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한다. 바로 '희생과 사랑!' 썩어지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한 알의 밀알, 자신이 바로 그 밀알이 되어 희생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싹을 틔우는 것이 불가능함을 생각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몽골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많은 선교사들을 몽골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용조목사님 묘소에서 함께 기도하다





이천선교 방문

주님을 위해 걸어갈 10년

31

그런 감동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테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이 다른 순교자들을 몽골로, 세계로 보낸 것처럼 몽골의 1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이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하나 된 마음을 현지인 리더들과 함께 품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이제 돌아와 앞으로 10년의 그림을 이 리더들과 함께 그린다. 20개의 교회 개척과 300명의 주님의 제자를 낳는 비전을 위해 8명의 리더들과 함께 달려가기로 한다. 제자 양육에 힘쓰고 서로 사랑함에 더욱 힘을 쓰자고 다짐한다. 매 순간 싸워가야 할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리더들의 상급은 나보다 클 것이라 믿는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이
다른 순교자들을 몽골로, 세계로 보낸 것처럼
몽골의 다음세대까지
이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열방에서

현지 사역자 간증

주님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다

보야 사역자

몽골

주님을 만나다

넓은 초원의 나라 몽골 D시 '주님의 교회'에서 전임 사역 중인 '보야'입니다. D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저는 다른 몽골 사람들처럼 전통적으로 라마불교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갔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은 후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심하게 아팠을 때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인 동생이 죽는 건 아닌가 무서운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동생의 열이 내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열이 내리고 편안하게 잠든 동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병을 치유해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후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32

기도하는 보야와 청년들



삶의 의미가 생기다

당시의 저는 어린 학생이었지만,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방황했고,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변화된 건 주님의 교회를 다닌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2박 3일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입니다. 생각과 말, 행동, 옷차림 등 모든 것이 변화되어 더 이상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변화되니 가족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면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삶의 의미와
비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중 제일 큰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꿈, 다르게 말하면 제 삶의 의미와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좀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힘으로 이끄시다

2011년, D시 한국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 요한B 선교사님이 U시로 이동하면서, 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저에게 교회가 이양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는 D시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4년도 안 되었고, 성경을 읽은 것 외엔 배운 적 없던 스무 살의 저는 교회를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리더들과 성도들이 점점 선교사님과 저를 비교하고 무시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데, 저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난 8년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열방에서

33

말씀사역 중인 보야





마다 성령님은 '이 일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말씀하시며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믿어준 선교사님들과 남은 리더들 덕분에 포기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새롭게 개척된 가정교회가 6개나 되었고 내년에는 '주님의 교회' 건축을 준비할 정도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전도를 통해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보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느끼며,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쳐 따르다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할 용기가 부족했던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와 말씀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전도를 통해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보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느끼며,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도전을 받아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매 달 마지막 주 성경 한 권씩 연구하는 모임을 하면서 우리 속사람의 변화와 우리를 들어 쓰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세우는 훈련!

정대훈 선교사
TIM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19-20)

35

TIM 교회개척 훈련 소개

할렐루야! 2018년 신임선교사 TIM 교회개척 훈련 (TIM Church-planting Training, 이하 TCT)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TCT는 故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비전(마 28:19)을 이어가는 두란노해외선교회의 대표적인 신임선교사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18명의 선교사와 9명의 MK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단지 개인의 전도 도구들을 준비하는 훈련에 그치지 않고, 선교현장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동시에 경험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번 또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①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MK 양육 ②사역팀 내 갈등 ③가정 내 갈등 ④분부와 현장의 의견 차이 등 수많은 과제들을 통과하는 시간이었

습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모든 훈련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복음 전파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TIM 교회개척 훈련 결과

18명의 TIM 신임선교사들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12주간 TCT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5시간 이상의 시간을 전도와 사역에 참여했고,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낮 시간에는 전도 도구들을 개발하였으며, 매일 디브리핑을 통해서 전도의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전도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4,775명의 영혼들을 만났고, 그 중에 1,993명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중 623명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 17명은 성경공부를 시작,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41명의 영혼들은 온누리 M센터 외국인 예배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모로코,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자 수많은 거절을 당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훈련 중에 찾아온 고난들

올해는 111년만에 찾아 온 폭염으로 인해, 전도와 사역에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외출하는 영혼은 줄어 든 반면 훈련에 임하는 신임선교사들은 더운 날씨에도 영혼을 찾아 다니다 보니 체력고갈로 인해 몇몇은 링거투흔을 보이거나 급격하게 떨어진 면역력으로 인해 한 가정은 집안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전염되어 격리 조치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전도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복음과 관련된 언어는 생소했습니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현장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언어 습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와 건강, 언어의 장벽보다 더 신임선교사들을 힘들게 한 것은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온 수 많은 이단들이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한국에 널리 퍼져있는 많은 이단들 외에도 중국에서 건너 온 동방번개, 파룬궁 등 그들은 주중, 주말 상관없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포교활동을 하며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했고, 이들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본부에서



훈련 속 간증

수 년간 목회사역을 하셨던 K신임선교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방개척선교사라는 TIM 선교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와 사역은 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직접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시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C국에서 10년 넘게 사역했던 Y신임선교사는 “매일 반복되는 사역의 일상 가운데,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언변이나 논리가 아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37

선교현장에서 때로는 복음전파가 아닌 사역을 향해 쫓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신임선교사들은 TIM 교회개척훈련 (TIM Church-planting Training) 중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전파에 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국가대표팀의 기초체력훈련에 많은 시간을 집중한 것처럼, TIM도 TCT를 통해서 신임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TIM 교회개척훈련 중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전파에 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2018년 OSOM 28기 신임 장기 선교사 간증 하나님의 뜻에 따른 움직이는 선교사

박성주 선교사

TIM

2018년 장기 선교사 훈련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사실 그 음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 놓고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치 않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한결 같은 말씀이었다. 크고 작은 삶의 모습, 환경의 변화들로 옷을 바꿔가며 내 앞에 펼쳐진 그 계획의 말씀은 실질적인 삶의 계획들로 나타났다.

첫번째,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보다는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다. 나는 항상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또 그 과정과 결과에 만족함을 두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치밀한 계획과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지 않으셨기에 치밀한 계획과 논리적인 실행은 빠르고 기계적인 완벽함을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진행보다는 내 안에 영향력을 키우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서 주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 복음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다. 더 느리고 답답해 보인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의 모습이었다.





둘째,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셨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전도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며 그들에게 돈을 주어 내게 오게 하거나, 여러가지 서비스로써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과 믿음만으로 삶을 나누며 고민하면서 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고,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째, 나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예배의 집중도에서 또 기도의 간절함과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전도자의 모습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다.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는 없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또한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찾아야 만 하는 재미있는 숙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선교사가 되고자 한다

TCT 훈련이 시작되고 3주정도 지났을 때였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한참을 뛰어다니며 전도하다가 천금 같은 휴식의 기회를 잡은 적이 있었다. 온누리교회 선교사 Orientation이었다. 7월 어느 금요일 전체를 Ori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로 올라와 교제하며 그 날 하루는 띠약볕에서의 전도를 쉬게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들에게 좋은 쉼이 되었고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서울에 올라와 있지만, 누군가 남아서 원곡공원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전도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해야 할 사람들과 남아 계신 듯했다.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다. 폭염경보는 어려운 난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선교사가 되고자 한다. 아마도 이 교훈이 2018년 긴 선교사 훈련을 통해 알게 해 주신 가장 값진 보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본부에서

2018년 FA FAMILY DAY

FA 전우회

유진현 간사

Tim

청년 크리스천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거나,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친구 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 삶도 힘든데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춰가며 빛을 잃어가는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비단 세상에 속한 청년 크리스천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현장을 경험한 FA 청년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마음은 동일하다.

주여,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Tim



심령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교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동행, 은혜… 그 시간을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보다 더 암담하다. FA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때의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다시 일깨우고, 세상 속에서도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마련된 'FA FAMILY DAY'!

삶의 바쁜 일상과 분주함을 잠깐 내려놓고,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지난 날 함께 했던 이들과의 추억을 꺼내 들고 온 FA청년들! 나 또한 FA청년 크리스천이자, TIM간사로서 그 자리에 함께했다.

선교의 시작, FA

특별히 이번에는 FA로 삶의 일부를 하나님과 보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장기선교사로 출국을 앞둔 가정과 FA 이후 단기 선교를 거쳐 장기선교사 훈련을 끝내고 출국 대기 중인 가정 등 FA선교사였던 두 가정을 축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41

결혼과 출산, 육아 그리고 장기 선교사 훈련의 시간을 거쳐 2018년 12월 출국을 앞둔 한예녹, 유니스 선교사는 2011년 FA 1기로 터키를 다녀왔다. FA에게 있어 두 사람은 자랑스러운 선배이자(현재 FA 15기가 현장 사역 중이다), 부러움의 가정이다. 청년의 때에 동일한 비전으로 함께 밟은 현장의 감동과 은혜, 그리고 결혼까지, 이들의 처음은 FA였다.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지난 날의 시간들 그리고 비전의 길로 한 발 더 내딛기 직전 FA후배들에게 받는 축복의 기도!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가정을 이뤘고, 두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 선교사의 삶!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이 선교현장에서 겪게 될 여러 상황들이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한예녹, 유니스 선교사 가정을 FA청년들은 마음껏 축복했다. 기도를 받는 자도 기도를 하는 자도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음에 틀림 없었다.





장기 선교사로 출국을 앞둔 FA선배를 축복하며 파송

한번 FA는 영원한 FA – FA전우회

FA청년들을 축복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오신 김승수 목사님(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본부장)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깊게 자리잡은 말이 있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알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번 FA는 영원한 FA’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FA전우회’에 오신 겁니다.”

해병대하면 귀신 잡는 해병, 빨간색, 무적, 정의(正義)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이 단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이 떠올랐다. 귀신도 굴복시키고 권위를 인정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 받고 성령 받은 우리야 말로 귀신 잡는 해병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군사이고, 그들이 입는 붉은 티셔츠보다 더 붉은 보혈의 피로 군복을 입



본부에서



었으며,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권위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군인!

군인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FA청년들이 지금은 어떠한가? 각자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각자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막강한 군인의 모습으로는 살아가고 있진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혼자가 힘들다면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주고 부축하며 함께해야 한다. 아무리 최강이어도 혼자는 최강이라는 말을 얻기 어렵다. 혼자는 최강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FA전우회'라는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FA라는 우리가 있었다. FA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선한 자극(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최종 목적지에서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 도 있다. FA가 아직은 'FA전우회'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길을 만들어가고 선한 자극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동네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그 동네의 치안을 위해 수고하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해병대 전우회처럼, FA청년 크리스천들이 각자가 속한 세상에서 힘겨워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모범을 보이며 힘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라고 소망해본다.

43

FA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선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최종 목적지에서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도 있다

FA가 아직은 'FA전우회'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길을 만들어가고
선한 자극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본부에서

2018년 FA FAMILY DAY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

FA 이후 가정과 직장, 지인들과의 관계 등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FA FAMILY DAY에 자리한 몇몇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FA를 다녀 온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FA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해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실까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답은 바로 ‘심풀한 삶’ 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들과의 관계도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우리 팀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나와 내가 만나는 영혼들과의 관계 이렇게 세가지로 내 삶의 안테나가 정리되어 집니다. FA를 가기 전 걱정했던 수 많은 세상의 고민들은 선교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FA를 다녀온 이후에는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FA를 통해 무수하게 돌아가던 내 삶의 안테나들을 잘라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끊고 절단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고 등돌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심풀’ 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FA 8기 조형진 선교사 OSOM 28기 장기 선교사(출국 대기 중)

저의 경우 선교에 뜻을 품고 FA를 지원했지만, 1년동안 배운 것은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왔고 친구들과도 매일 학교에서 만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6개월을 같이 지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1년의 경험들이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나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FA를 다녀온 후에는 모든 사람들 각 개인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어떻게해서든 싫어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심어놓으신 특별한 DNA를 찾고 바라보며,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품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였기에 공동체 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구원대상자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FA 10, 11기 유정윤 자매



FA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의 짧음과 시간을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은 걸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많은 것들에는 하나님의 마음, 공동체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포함될 거 같습니다.

먼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으로 온전히 전해져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저는 FA가 끝났다고 해서 그저 기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는 저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다녀온 후에는 이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데에 분명히 이 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FA 이후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할 때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만약 FA의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인생에서 헛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았을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더라면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인정과 욕심으로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의 가정에, 직장에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현재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해당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는데 힘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45

FA 12기 김시라 자매

삶의 모든 부분, 관계, 일, 교회, 사역, 신앙 등 하나님께 100%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선교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만이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TIM간사로 사역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선교지에서와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 하는지, 그에 맞는 능력과 지혜,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FA 13기 신기해 자매 TIM간사



본부에서

TIM 위기관리 TF 효율적인 선교사 위기관리

남정진 장로

TIM

최근 비자발적 철수, 질병, 인간관계, 영성,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선교사들의 위기 발생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의 대량 비자발적 선교사 철수는 선교사 본인은 물론 가족, 선교단체, 파송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비자발적 철수로 선교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열방을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식하고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TIM도 지난 11월 제주 2019 선교컨설팅을 계기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위기관리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TIM 매뉴얼에 위기상황 발생시 위기관리팀(CMT : Crisis Management Team)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를 담당할 사람도 교육도 준비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TIM은 점점 현장 사역의 문이 좁아지는 상황에 맞서 효율적인 선교사 위기관리를 위해 담당 장로와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4명, 본부스텝 1명으로 'TIM 위기관리 TF팀'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TF팀은 먼저 위기관리에 대한 규정과 지침,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교육과 세미나, 포럼에 참가했다. 또한 국내 타 선교단체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선교지에서의 비자발적 철수에 대한 대비와 예방 및 비자발적 철수 시 공항 영접을 시작으로 숙소, 자녀, 디브리핑, 멤버 케어, 모임, 교육, 쉼 그리고 재배치까지 TIM 자체 세부 매뉴얼과 시행 계획을 만들었다. 선교사 개개인의 맞춤식 멤버 케어와 재배치로 본부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지만, 멤버 케어를 받고 재배치되어야 할 당사자인 선교사의 참여로 보다 실제적으로 선교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행 가능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 선교 컨설팅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기관과 컨설팅 참석자들 또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이 재배치될 때까지 최대한 후원하고 섬기기로 합의했다.

언젠가는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지만, 갑작스런 비자발적 철수로 인한 떠남은 선교사나 본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한치 앞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과 가시밭 같은 마음, 무엇이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인생길 앞에 오직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어야 하는 선교사들! 우리 모두는 사역지에 있던 현장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본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하자!



Yim

본부 소식 10~12월



본부에서

FA



9월 | FA15기 파송식



9월 | FA15기 키맨모임



9월 | FA15기 출국



11월 | FA FAMILY DAY

세미나, 행사



9월 | 몽골 현지인 목사 안수식



10월 | 캄보디아 쓰릴란교회현당식



10월 | 캄보디아 쪼아동교회현당식



10월 | 권역코디네이터(RC) 전략회의



10월 | C+세미나(팔렘방)



11월 | 일본 전략회의



11월 | TIMA 전략회의



11월 | ECC 범인이사회



12월 | 전략팀 스태프 위기관리세미나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Yim



본부에서

Yim

본부 소식 10~12월

기도모임



10~12월 | FA 기도모임



10~12월 | MK 기도모임



48

10월 | 한남동 기도모임



11~12월 | 한남동 기도모임

선교사 파송



9월 | 요한 선교사 파송



9월 | 수산나 선교사 3기 사역 파송



10월 | 박재원 선교사 파송



12월 | 한예녹, 유니스 선교사 파송



훈련



9월 | 2018년 신임선교사 TCT훈련 수료



10월 | 2018년 신임선교사 리트리트



10월 | 2018년 신임선교사 사역보고



10월 | 2018년 신임선교사 수료식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Yim

반석교회 비전교회 소양교회 수원영락교회

영원교회(원미구) 영원교회(소사구)

예수누리교회 예수향기교회 은광교회 의정부영락교회

일산함께하는교회 일산혜림교회 진세골온누리교회

충만한교회 풍동교회 풍성한교회 하림교회 희망의교회

그레이스선교교회 나눔아트센터 대군통상

라이브교회 미아영문교회 서울성원교회

소원의향구교회 승복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은평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중앙교회 하늘소리선교회

행복한주원교회 화평교회

AM(Asian Mission) 21세기푸른나무교회

열방교회 온누리소망교회 인천청지기교회

코스모스교회

충북

회남교회

전북

정읍순복음교회

전남

계산교회 성전중앙교회

완도성광교회 이읍교회

경기

서울

인천

경북

시외찬마다교회

부산

부산부평교회

제8영도교회

대구

대구성원교회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America)
Jewish Community Center of Fort Lee,
1449 Anderson Avenu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Sam Ahn)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Hirata 3-17-3 Ichikawa city Chiba
prefecture, Japan
Tel. 81-47-378-0313